

<生物部門>

質的으로 크게 向上



朴 萬 奎

文化公報部文化財委員

이번 科學展覽會의 生物分科의 出品된 作品은 모두 44點이었고, 이를 分野別로 구분하면, 科學教材分野가 6點, 基礎分野가 38點이다. 다시 審査하는 對象別로 보면 科學教材分野에서는 國民科學와 中等學校 教師作品이 각각 2點, 國民學校와 高等學教 學生作品이 각각 2點이었고, 中學校 學生作品은 한가지도 없었으며, 基礎分野에서는 教師作品이 18點인데, 國民學校가 6點 中等학교가 12點이며 學生作品은 모두 21點이며 그중에는 國民學校가 16點, 中學校가 4點, 高等學教가 1點으로 되어있다. 앞으로는 中學校와 高等學校 學生들이 많이 參與하여, 科學水準을 向上시키는 일꾼이 되도록 對策이 있어야 하겠다.

더욱, 이번 展覽會에서는 科學教材分野를 新設하여 科學教科書의 改編에 따른 教材, 教具의 開發과 더불어 實驗方法을 改善하며 各級學校의 科學指導에 있어 直接 活用하려는 政府施策과는 달리 이 分野의 作品이 적었고, 出衆하여 活用性이 없었는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었다.

今年度の 出品數는 昨年度에 비하여 그 절반 밖에 안되지만 質的으로는 모두 優秀했다는 것이 例년에 보지못하던 成果라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科學教育이 올바르게 營爲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科學水準이 向上될 것도 머지 않은 앞날이라고 믿어진다.

觀察, 實驗, 研究, 題目을 選定함에 있어서 實生活와 密接한 것을 身近에서 골라냈고, 이를 解決하기 위한 調查, 實驗, 研究方法이 無理가 없었으며 그 結果處理가 合理的이며 正確性을

期한 점은 어떤 作品에서나 모두 엿볼 수가있었다는 것이 今年度 作品의 總評이므로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最高 榮譽인 大統領賞을 받은 忠淸北道 淸州 農業高等學校教師, 이재일氏作品 Trypanosoma의 감염과 그 피해 방제 연구는 3個年을 계속적으로 調查研究를 하여 얻은 業績이다. 初年度에는 基礎調查로서 그 實態를 파악하고 2次年度에는 感染徑路를 밝히는 동시에 病原虫을 培養하여 實驗動物에 接種하고 病狀症을 究明하였으며 第3次年度에는 그 病의 豫防策과 治療法에 관한 研究를 한것이다. 이 調查研究는 우리나라에서는 未開拓分野에 屬한 것인데 高等學校教師로써 이 調查研究를 完成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評價될 수가 있는데, 學界에 貢獻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畜產業界에서도 그 結果를 活用하여 利益을 높일 수 있는 實用性이있는 값있는 研究라고 본다.

이 밖에 해면식물의 토양고정 특성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分野를 研究 開拓하였으며, 그 努力은 대단한 것이었다. 또, 地衣類의 분포와 생태 河川의 세균학적 오염 조사, 흡혈성 등애류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등은 새로운 면을 조사 연구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 學生作品에서는 씨앗이 싹틀 때에 힘은 얼마나 드나 왜 채송화꽃은 낮에만 피고 달맞이꽃은 밤에만 피나하는 것은 제목이 教材에 관련이 있고 正確하고 치밀하며 記錄이 완전하여 그나름대로 낸 결론에 모순점이 없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되는 作品이다.